

## 한 소망 안에서 부름 받은 전국교회

“평안의 때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에베소서 4:3-6)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모든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새로운 출발을 함께 시작합시다.

새해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어 건강과 평안이 넘치며,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한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의 비전을 위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으는 총회세례교인헌금 시행의 날입니다. 이 날은 전국교회가 총회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함께 동역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려는 소명을 품고 전국교회가 힘을 모으는 날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 우리 모두의 기도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특히 세례교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작은 물질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씨앗 한 알이 백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 첫째, 본문의 배경과 메시지의 의미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여정이 서로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유대교에서 갓 개종한 자들, 이방 종교에서 온 자들, 신앙이 깊은 자들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한 교회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로 다른 생각과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며,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말씀에서 "하나됨"이라는 단어는 본문 3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하나됨"이란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참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됨"에 담긴 주요한 내용은 연합과 일치, 공동체적인 관계,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하나됨 등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바울이 사용한 "하나됨"이란 단순히 모이는 것 이상의 조화로운 연합과 내적인 일치를 의미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은 모든 구성원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목적과 비전을 위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다양성을 무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강조합니다.

또 "하나됨"이란 단지 외적인 협력이나 관계를 넘어 내면적이고 영적인 연합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중심으로 각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동시에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연합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됨"이란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사용했던 "하나됨"이란 원래의 의미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인 완전한 일치라는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됨"이란 성령의 역사를 통한 초자연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됨"의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히 인간적인 의지나 노력의 산물이 아닌,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연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문(엡4:3)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는데, 이는 성령께서 시작하신 하나됨을 위하여 성도들이 서로 협력해야 함을 가리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말씀은 원어적으로 볼 때, 단순한 결속이나 협력을 넘어 성령의 임재와 인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초월적인 연합을 강조합니다.

이 연합은 다양성 가운데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것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을 반영해 줍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의미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한 것입니다.

## **둘째,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의 근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산하 전국교회와 성도들은 모두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총회와 전국교회는 한 부르심을 받은 한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강조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은 교회의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교회의 하나됨은 곧 전국교회의 연합이요, 동일한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연합하고, 전국교회가 동일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먼저, 성령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연합의 근거입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 됨을 경험했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 하나가 되어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교회의 하나됨의 근원이요, 전국교회가 동일한 공동체가 된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평안의 매는 줄이 하나됨의 근거입니다. 교회는 평안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단순한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화목입니다. 이 평안은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끈이 됩니다. 평안의 매는 줄이 교회를 하나로 묶고, 전국교회를 연합하게 된 끈입니다.

또 하나는 한 주, 한 세례, 한 하나님인 일체됨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하나님, 곧 만유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런 공통된 믿음이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기초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이 세가지로 인하여 전국의 12,000여 개의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총회는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 된 교회입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묶여진 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교회와 성도들은 한 믿음을 고백하며, 성령 안에서 연합해야 합니다.

### **셋째, 하나 된 교회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교회의 하나됨을 원하시고, 교회의 연합을 이루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을 보내시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섬김과 헌신은 곧 그리스도를 위한 섬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단순한 물질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이번에 드리는 세례교인헌금은 하나님의 꿈,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영적 헌신입니다.

### **넷째, 총회를 든든히 세우는 길**

총회는 전국 교회가 연합하여 이루어진 초대형 교회, 초대형 공동체입니다. 이 거대한 공동체는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비전이 담긴 교회입니다.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작은 물줄기가 도랑을 이루고, 시내를 이루어 마침내 큰 강을 이루듯이, 전국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세례교인헌금이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대한 강물이 될 것입니다.

이 헌금은 총회를 든든히 세우고, 총회의 비전을 이루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전국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드리는 헌금은 교회를 살찌게 하고, 총회

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의 사명은 하나 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믿음, 한 소망, 한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눕시다. 여러분의 소중한 세례교인 헌금은 단순한 물질적인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의 고백이며,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 전국교회가 더욱 하나로 연합하고, 총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될 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이 차곡히 쌓여져서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같은 부르심을 받은 총회, 우리와 한 부름 동일한 부름을 받은 총회는 우리 모두의 교회입니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 총회를 세워가는 주역이 됩시다. 우리 교회와 동일한 공동체인 총회의 주인공으로 헌신합시다!

2025. 1. 19.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9회 총회장 김종혁 목사